

제9회 광주비엔날레 D-100 (9월 7일~11월 11일)

# 시민들 참여... 지역문화 정체성 담아낸다

### 참여작가 15명 광주 체류... 지역민과 소통 작품 제작

### '100대 자전거 프로젝트' '예술의 경제성 워크숍' 등

광주비엔날레는 행사 때마다 국내외에서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는 총 관람객수가 수십만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올해로 9회를 맞는 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만의 확고한 전시 주제와 정체성으로 국내외 미술계에 '문화수도'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 한몫을 해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긍정적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지역민들의 문화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화행사에에도 불구하고, 참여 작가와 일부 문화산업 참여자들만의 행사에 머물고 있다거나 지역민과의 소통·참여가 미흡한 '그들만의 행사'라는 지적도 행사가 끝난 뒤 빠지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위상을 확고히 수립한 광주의 유일한 문화 이벤트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기대감도 크다는 얘기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올해 열리는 9회 행사(9월 7일~11월 11일)를 100일(30일) 앞두고 '참여형 비엔날레' 개최를 표방하고 나섰다. 참여 작가들이 일정 기간 광주에 체류, 지역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해 세

로운 작품을 만드는 '뉴 프로덕션' 프로그램으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지역과의 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모두 15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일반 시민 ▲광주의 특경 커뮤니티 ▲지역작가 및 관련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 완성 ▲전시기간 중 퍼포먼스 참여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 스코트 에디는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라는 설치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관람객들과 만난다. 고장나 버려진 자전거를 모아 부품을 교체하거나 색깔을 새로 입혀 달라진 만드는 작업으로, 지역 공동체, 동호회와 워크숍을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쳐 전시 기간 시민 관람객 모두가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게 작품 테마다.

멕시코 출신 작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는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광주극장 사육 빈집에 거주하면서 도심 속 잊혀진 장소에 일상과 예술이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작품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젊은 작가들과 예술의 경제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마련해 이를 담은 아티스트 북도 내놓을 예정이다.

필리핀 출신 작가 프코롱 나빙의



뉴질랜드 출신 작가 스코트 에디가 설치했던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 작품. <The Dowse Art Museum, Lower Hutt, New Zealand>

경우 광주 등 국내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소지품과 이야기를 수집한 뒤 시각적 작품으로 담아내겠다는 컨셉에 따라 지역을 돌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작가 마그누스 뱃토스는 한국 근대사를 함께해온 광주극장에 포커스를 맞춰 한국여성영화의 '변사'를 소재로 한 신작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현대판 변사로서 지역 배우, 가수, 시인, 드러머 등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대만 작가 준양은 대인시장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 큐레이터, 작

가 등과 협업하면서 시장에 형성된 미술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미술계의 대안적 활동이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거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외 무속인·풍수가·스님 등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워크숍을 열어 작품에 대한 조언을 들은 뒤 지역 유리공방이나 철공소 등 장인들과 협업하면서 작품을 만들기로 한 뉴질랜드 작가 대인 미첼이나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도시화 및 도심 개발로 소외된 사회 계층에 대한 영향, 신도시 표면에 감춰진 숨은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브라질 출신 모나카 나도

르 등의 시민 참여형 작품 제작 방향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참여형 비엔날레의 핵심은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전체 주제에 맞으면서도, 지역 문화와 정체성, 역사를 담아내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참여 작가들은 이를 위해 지역 작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어느때보다 소통이 강화된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갤러리 '미디어아트338'

## 광주의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엿보기

### 문화재단, 내달 26일까지 '광주 미디어아트 리포트'전

순수 미술 공간에서 여쭙다 미디어아트를 접할 때마다 아쉬워하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다. 미디어아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감성할만한 공간은 어디가 있는지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관람객들을 배려했을까, 미디어아트를 관람객들에게 충분히 알리겠다는 취지의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다음달 26일까지 338에서 '광주 미디어아트 리포트-갤러리에서 갤러리를 만나다'전을 연다. 광주에서 운영중인 미디어아트 갤러

리를 아카이브 형태로 펼쳐 보여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광주지역의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갤러리 '미디어X', '홀앤코너M', '미디어큐브338' 등이 참여한다.

특히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업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전시를 위해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도 관람객들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차가운 기술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진 미디어아트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문의 062-670-791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치마 밑 보일락말락... 버선의 수줍음

### 류현자 개인전, 내달 4일까지 롯데갤러리

'버선코를 닮은 치마 곡선의 부드러운'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한옥 특유의 여유로움과 멋스러움을 얘기할때면 빠지지 않는 표현으로, 한국적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수식어다.

치마 밑으로 보일락말락 드러나는 버선의 곡선미에 주목한 한국화가 류현자씨의 전시가 마련됐다. 류씨는 다음달 4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사모곡'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광주 롯데 창작 지원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초대전으로, 버선을 소재로 한 작품 30여점이 선을 보인다.

작품 곳곳에서는 버선 모양을 여러 차례 겹쳐 붙이면서 만들어진 기하학적인 곡선의 변주가 새롭게 다가온다. 버선이 겹쳐졌을 뿐인데, 산이 첩첩이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주체에 맞춰 푸근하면서 넓은 어머니의 가슴선으로, 때로는 커다란 보름달을 쫓아놓은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노랑, 빨강, 초록 등 원색을 활용해



'네모산수속으로'

한지가 갖는 단순함과 밋밋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한지의 독특한 질감이 도드라진다. 폐한지를 물에 풀어 이겨내는 방법으로 한지 특유의 질감을 살려, 질긴 손지를 부차, 채색하는 작업 방식에는 작가의 섬세함을 접할 수 있다. 문의 062-222-007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페라로 부활한 왕건과 장화왕후의 사랑

### 빛소리오페라단 '장화왕후', 6월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16일 나주문화회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 오페라 '장화왕후'를 무대에 올린다. 6월2일 오후 3시·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6일 오후 3시·7시 나주문화회관.

'장화왕후'는 지난 2008년 장화왕후의 고향인 나주에서 영산강축제의 때 초연됐었고 광주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조 왕건의 부인으로 혜종의 어

머니이기도 한 장화왕후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나주 완사천을 배경으로 왕건과 장화왕후의 사랑과 업적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대작이다.

이번 작품에는 광주와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과 카메라타 플레기움 오케스트라, 서영무용단, 광주대합창단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주인공 장화왕후역으로는 소프라노 유형민·박수진씨가 더블 캐스팅됐으며 태조 왕건 역의 바리톤 김대수·김기보, 장화왕후의 아버지인 오다련군과 어머니 덕교 역으로는 바리톤 마명준·조규철씨와 메조 소프라노 박소연·정은경씨가 출연한다.

김준태 사인이 대본을 썼으며 이철우씨가 작곡했다. 최덕식 광주대



교수가 총감독, 박미애 교수가 연출을 맡았으며 관현악 지휘는 임흥규, 합창 지휘는 구천씨다.

지난 1999년 창단 공연으로 5·18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 '무등동동'을 무대에 올렸던 (사)빛소리오페라

단은 이후 '마술피리', '유쾌한 미망인', '라 보엠' 등 전통 오페라 작품뿐 아니라 '한국에서 온 편지', '춘향' '꽃피어 꽃 피고' 등 창작 작품을 꾸준히 공연해 왔다. 문의 062-227-7442.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30주년

# 30%

#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